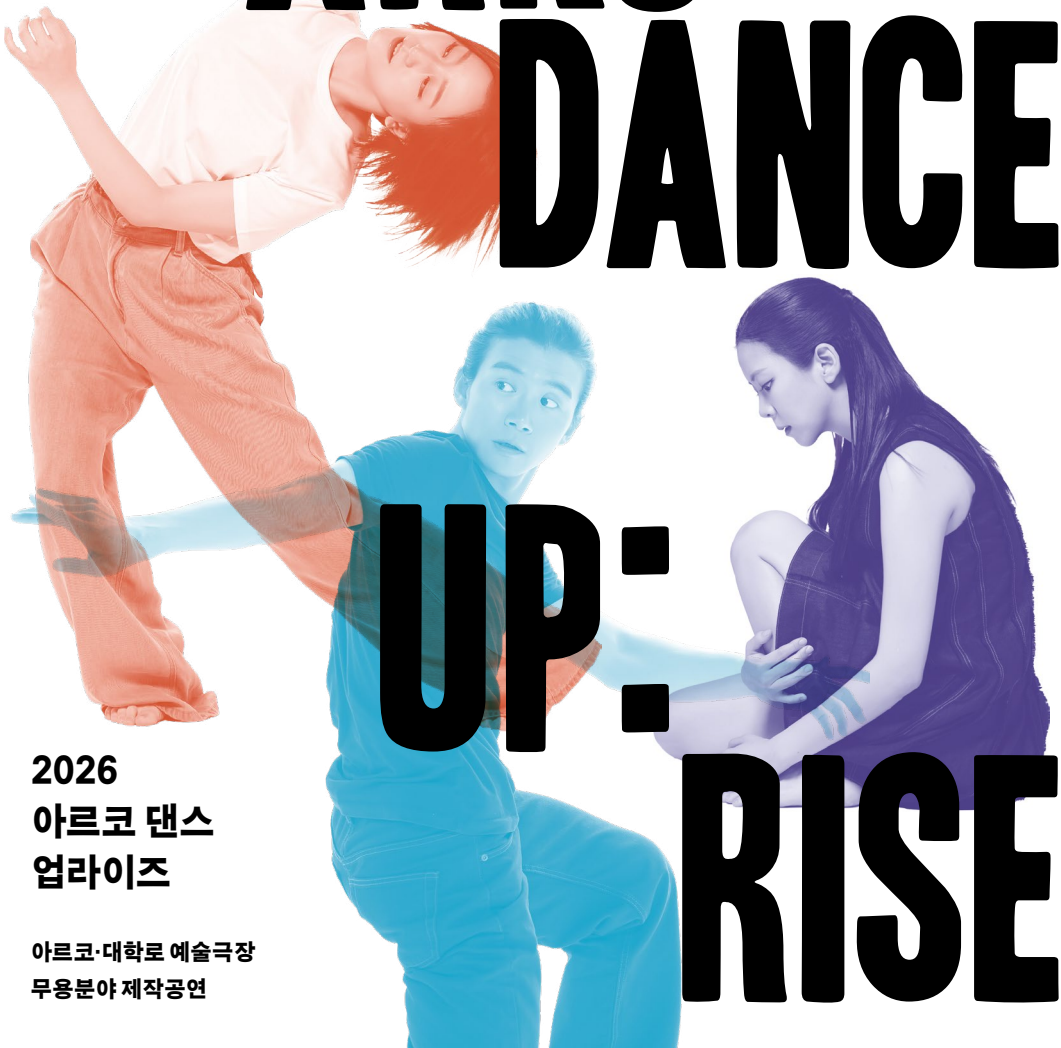
# 2026 ARKO DANCE UP:RISE





2026
아르코 댄스
업라이즈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무용분야 제작공연

안무가의 오늘을 넘어, 내일을 여는 성장의 무대

# 아르코 댄스 UP:RISE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 댄스 UP:RISE>는 신진 안무가를 비롯한 중견 무용 창작자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의 지평을 넓히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아르코 댄스&커넥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작품 제작 자체보다 안무가의 성장과 창작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러한 취지와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2025년부터 <아르코 댄스 UP:RISE>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작 초연을 지원하는 '스테이지 1'과 일부 작품을 다음 해 약 60분 분량의 완성작으로 발전시키는 '스테이지 2'로 구성되며, 2년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안무가의 성장과 작품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무용 창작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 기무간
경계에 서서 무한한 확장을 꿈꾸다



## 손정현
감정의 모양을 담은 움직임



## 이세승
큰 역사와 작은 몸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 들다



## 함초롬
사유는 깊게, 몸은 과감하게

# KI MOOGAN
# 기무간

안무
기무간
드라마투르그
사코 카나코
출연
정재우
정주연
기무간
음악감독
우지코브사운드
조명디자인
김병구 Arko

미술감독
조일경
의상디자인
댄스앤드림
무대감독
김진우
음향감독
김종현 Arko
프로젝트매니저
김수현



##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몸을 굳히고, 타인과 거리를 둔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생겨나는 작은 이질감과 실수,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에 쌓여간다. 호흡이 얕아지고, 몸이 굳어간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손길을 피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닫힌 몸이라도 타인의 존재는 스며들어 온다.

평범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사소한 계기로 거리가 좁혀지고, 몸과 몸이 닿는다. 누군가의 무게를 받아들인다. 밀리면 밀어내고, 쓰러질 것 같으면 곁에 있는 몸에 기대어 선다. 작은 일들이 겹치면서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움직임이 생겨나고,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혼자였던 몸이 누군가와 닿고,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난 관계는 세 사람이 되는 순간 또 다른 역학을 갖기 시작한다. 서로 얽히고 부딪히며 마찰을 거듭한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열은 어느 순간 인간의 체온으로 느껴진다.

여기에서의 접촉은 반드시 다정함이나 위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쓰러지려는 누군가를 받쳐주는 일은 동시에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일이기도 하다. 타인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 또한 그 무게에 의해 변해가는 일이기도 하다.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받는 사람의 역할은 고정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흔들며, 서로에게 다가서는 이유 또한 조금씩 달라져 간다.

그것은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상처와 고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각자의 무게를 품은 채 넘어지고, 때로는 받쳐주고, 때로는 기대며 함께 버텨내는 것. 그 경험 속에서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생겨난다.

하지만 내민 손이 언제나 상대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닿는다고, 받아들여진다고도 할 수 없다. 애초에 누군가의 무게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눈앞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누구에게,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설 것인가.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나 자신 또한 변해버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러한 질문을 옳고 그름이나 정답으로 제시하는 대신, 몸과 몸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무대 위에 놓는다. 말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몸으로 받아낸다. 닿는다. 흔들린다.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다. 이야기로 답을 제시하는 대신,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행위 앞에 관객 자신의 몸을 놓는다. 그때 생겨나는 마찰과 체온 속에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불확실성과 그 가능성을 바라본다.



## 드라마투르그의 시선

인간의 몸에는 말로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가라앉아 있다. “이 움직임에는 누군가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서사성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라고 안무가 기무간은 말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제목은 기존의 서사 구조를 부정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직 언어나 의미로 자리 잡기 전의 감각을 통해 무대 위에서 경험되는 신체 그 자체를 향해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와 함께 걷다가 나만 다른 방향으로 피했던 순간. 아주 조금 주변과 타이밍이 어긋나,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작은 감정의 틈. 하나하나는 이야기라고 부를 만큼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은 걷는 방식, 서 있는 모습, 호흡, 타인과의 거리, 누군가의 손길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몸에 쌓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 작품은 그렇게 신체 안에 남아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왜 지쳐 있는가. 왜 일어서지 못하는가. 왜 주변과 다른가. 그 이유를 하나의 서사로 제시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지금 그곳에 존재하는 몸 자체를 무대 위에 놓는다. 움직이지 못하게 된 몸으로 아주 조금, 타인의 무게를 받아들인다. 그 작은 행위로 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감각이 떠오르는 순간, 관객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바라보며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와 마주하게 된다.



## 안무가 기무간

**기무간은 프리랜서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중학 시절부터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예술사 졸업을 전후로 다양한 안무자들의 작업에 참여하며 무용수로서의 쌓은 경험을 토대로 연출 및 안무, 비주얼 아트와 모델 활동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순수예술의 모호한 경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느껴지는 영역에 더욱 깊게 침범하며, 무한히 확장되는 신체언어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다.**



# SOHN JUNGHYUN
# 손정현

**트리거워닝**

**본 공연은 장면 중 피아노 뚜껑을 닫는 소리 등 갑작스럽고 큰 음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안무 | 의상디자인 |
| 손정현 | 최인숙 |
| 드라마투르그 | 조명디자인 |
| 전강희 | 김병구 Arko |
| 출연 | 무대감독 |
| 이안 | 김인성 Arko |
| 배민호 | 음향감독 |
| 김상헌 | 고태현 |
| 이준환 | 키네틱 테크니컬 디자인 |
| 손정현 | 오의진 |
| 사운드·음악감독 | 자문 |
| 양선용 | 길형권 |
| 무대디자인 | 협찬 |
| 신나경 | 삭스타즈 |



## 발끝의 균형

양말을 검수한다.

실밥이 조금 풀렸는지, 형태가 미세하게 어긋났는지 살핀다.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해진 규격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된다. 한 철을 충분히 신고도 남을 양말이, 작은 틈 하나로 버려진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부족한 사람이 된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반복되는 말 속에서 어느새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더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맞춰 검열하기 시작한다.

정말 하자는 결함일까.

〈발끝의 균형〉은 하자를 결함이 아닌 차이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다시 서는 힘. 그러나 그 힘은 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린다.

무대 위에서 몸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살핀다. 늘리고, 뒤집고, 두드리는 반복 속에서 몸은 검수하는 주체가 되었다가 검수받는 대상이 된다. 정확하게 반복되는 리듬은 몸에 즐거운 감각을 만들어내지만, 작은 어긋남이 발견되는 순간 질서는 흔들리고 그 감각은 긴장으로 바뀐다. 그러나 몸은 어긋남을 다시 바로잡는 데 머물지 않는다.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기준선 밖으로 한 발 더 내민다.

균형은 도달해야 하는 결과가 아니다. 매 순간 다시 조율해야 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힘. 〈발끝의 균형〉은 그 힘에 관한 이야기다.



## 드라마투르그의 시선

연습실에 여러 사람이 있다. 안무가가 연습실에 불러 모은 사람들은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는 피아니스트, 한때 성악을 했던 무용수, 공연의 모든 장면에 등장해야 하는 임무를 띤 무용수, 긴장과 불안이라는 형체 없는 것에 소리를 부여하는 디자이너, 각종 자재의 소리로 박자감을 만드는 연주자, 양말 공장과 경연장 그리고 무대를 동시에 고민하는 무대디자이너'이다.

연습은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해진 기준과 그것을 넘어서거나 다른 것을 시도해 보려던 순간 발생하는 몸의 떨림과 마음의 상태, 그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 안타깝게도 그것을 인식하고야 마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후 각자에게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은 방식, 즉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보는 시도를 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대신에 두드리지 않았던 곳에서 소리를 만들어보기, 전진하는 신체가 아니라 물러나는 신체로 무대를 횡단하기, 몸과 마음이 들뜨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기, 자신과 타인을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잣대 없이 하염없이 들여다보기.

나는 그저 연습실에서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보내는 시간 속에 함께 있었다. 관객들 역시 무대 위에서 흘러가는 이 시간을 겪어주기를 바란다. 발끝의 아슬아슬한 힘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 안무가 손정현

손정현은 한국춤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몸과 감각을 탐구하는 안무가다. 긴장한 호흡, 스치는 시선, 미세하게 굳는 어깨처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몸의 작은 변화를 오래 들여다봐 왔다. 겉으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몸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흔들리며 주변과 관계를 맺는다. 안무가 손정현은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과 감각을 포착해 춤의 언어로 확장한다.

몸에서 시작되는 작은 징후와 변화를 따라가며, 익숙한 움직임 안에서 낯선 감각을 발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작으로 〈음어아(Um Uh Ah)〉, 〈VIVA LA VIDA〉, 〈리틀 포레스트〉, 〈자취 적〉 등이 있다.

# LEE 이세승 SEISEUNG

**트리거워닝**

**본 공연에는 언어 및 신체적 폭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면들은 위계와 억압 속에서의 경험을 다루며,**
**관객에 따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안무**
이세승

**드라마투르그**
홍은지

**퍼포머·움직임 및 텍스트 공동창작**
손지민
엄선우
윤가연
이채은

**구성 및 연출 지원·안전관리책임자**
조다은

**사운드**
김예지

**조명디자인**
윤해인

**의상디자인**
이은경(EK)

**그래픽디자인**
김보라

**액팅 트레이닝**
이종민

**무대감독**
서지훈 Arko

**음향감독**
남영모 Arko




## 군기의 역사

하나의 질문. 한국의 무용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 인물을 상상해 보면, 어렸을 적에 춤을 시작하고,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입시를 치르고 대학교 무용과에 진학한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무용단 활동 등을 통해 무용계 활동을 지속한다. 물론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용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를 부분적으로 밟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두 충족하는 무용수 또한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

질문을 바꿔보자. 한국의 무용수로서 그/그녀는 어떤 폭력들을 경험했을까? 이 작업은 무용계와 춤추는 몸의 주위에 함께 존재한 폭력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폭력의 작동 방식인 '군기'에 집중한다. 뒤집어 말하면, 폭력의 주변에 또는 한복판에 춤추는 몸이 있었다. '군기'로 대표되는 무용계의 폭력들이 어떻게 무용수의 몸을 형성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듯이,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의 작업에 영향을 받았다. 푸코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지식 담론과, 순종하는 주체를 생산하는 규율 권력을 초·중기 작업들에서 다뤘다. 그는 주체를 생산하는 시설들로 감옥, 군대, 병원, 공장, 그리고 학교를 제시했다. 이 관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무용학교, 무용학원은 순종하는 주체, 또는 예속화된 몸을 생산해 온 것은 아니었을까? 나아가 이들 시설이 '군기'를 기제로 배출한 몸들이 춤을 만들어낸다면, 그 춤은 권력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한국의 무용계에서 군기는 극히 소수가 겪은 것이거나, 과거의 아주 특수한 경우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겪은 이가 있다면, 그/그녀의 말과 몸짓에, 마땅히 모든 감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이뤄졌을지라도, 그러한 과거를 통과한 몸들은 현재에 있다. '군기와 폭력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야'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폭력의 구조로 이루어진 그물망은 더욱 교묘하게 아직 어린 몸들을 또다시 포획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그러한 무용계의 틈과 균열을 직시하고, 어린 몸들이 미래로 온전히 나아갔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은 그러한 폭력적 구조 때문에 춤출 수 없었던 몸에 대한 애도이기도 하다. 나아가 더 큰 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자기-안무(Auto-Choreography)'라는 과정을 설정하여, 자주 실패하고 아픔을 다시 겪기도 하면서, 작업 구성원들과 '함께-몸/쓰기'에 대한 책임의 합당한 나눔을 모색했다.



*〈자기이론-자기의 삶으로 작업하기〉
(로런 포니에, 마티, 2025)

## 드라마투르그의 시선

안무가, 무용수, 연구자, 교육자 등 춤과 움직임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지속해 온 이세승 안무가는 춤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으로부터 몸이 관계한 현실의 조건을 탐색하는 작업으로의 전환점으로서 〈군기의 역사〉를 시도한다. 그는 '자기 이론'*을 무용적으로 차용, '자기 -안무'를 통과해 '함께-몸/쓰기'라는 방법론을 설정하고, 창작자들의 개인적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감각과 인식의 구조를 재검토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군기의 역사〉는 무용수가 되기 위한 제도교육 진학과 무용계 진입 속에서 개인의 신체에 개입했던 폭력적 작동 방식인 '군기'가 무용수의 몸과 태도를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 질문하며 탐색의 경로를 드러낸다. 학교 교육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장면들은 과거에서 현재로 진행되며 자기-몸/쓰기의 이야기 · 몸 · 텍스트가 얽혀 기억을 기술하고 내면과 인식의 점진적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퍼포머들은 무대 위에서 자기 삶을 (다시) 살면서 고발-고백-표현의 주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성하는 증인으로서, 개별 경험이 보편 경험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 작업은 '폭력이 우리의 몸/마음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무엇이 증폭되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게 만드는지'라는 질문이 관객의 삶과 연루되어 개인 서사가 집단 감각에 맞물리고 공명하며, 개인사가 공동의 역사를 형성해 나가는 흐름을 함께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





## 안무가 이세승

이세승은 현재 독립안무가, 공연연출가, 무용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안무를 전공했고, 이론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컨택즉흥'(Contact Improvisation)을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집단 '쌍방'을 동료들과 함께 조직했다. 주로 큰 역사에서 작은 무용사를 오가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며, 작업 참여 구성원 사이에서 지평적 협업을 지향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안무작으로, 타자의 목소리를 전유해 파토스의 전염을 꾀하는 〈뱅-굿〉시리즈 (2023-), 집단과 개인 사이의 신명을 안무한 〈덩〉(2022), 몸의 주술성을 입체적으로 다룬 〈원〉(2021), 한국무용의 섬세성을 움직임에 집중해 풀어낸 〈한〉(2020), 역사적 현대무용의 군무 형식에 대한 화답인 〈불의 연구〉(2019), 무용 저작권 이슈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다룬 〈삼고무〉(2019) 등이 있다.

# HAM CHOROM
# 함초롬

안무 및 연출
함초롬
드라마투르그
염혜원
리허설 디렉터
임희종
공동창작 무용수
김문주
이다겸
이주하
백서현
허가람

음악 디자이너
최혜리
의상 디자이너
고아라
다큐멘터리 감독
임수아
조명디자인
탁형선 Arko
무대 감독
원소미 Arko
음향감독
허선영 Arko



## KIWA

작품 〈KIWA〉는 더 효율적이고 거대한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 속에서, 그 반대편에 오랫동안 인간의 삶 가까이에 머물러온 작고 평범한 것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K-I-W-A'라는 익숙한 단어를 낯선 알파벳으로 풀어 읽은 뒤 다시 '기와'라는 친숙한 이름에 가닿는 과정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나 점점 잊혀가는 사물의 흔적을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 여정은 무르고 쉽게 흐트러지는 흙이 기와가 되고, 기와들이 서로 겹쳐 하나의 지붕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밥을 짓고, 쓸고 닦고, 매만지며 돌보는 우리의 일상과 닮아있다. 사소해 보이는 일들은 매일 반복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고됨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쌓이고 이어지며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가족과 공동체를 이어왔다. 그렇게 작은 삶의 시간이 겹쳐 오늘의 우리를 지탱하는 단단함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몸으로 따라간다. 무용수들은 흙을 밟고, 다지고, 밀어내며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누군가 지나간 자리를 다른 몸이 다시 밟고, 흙 위에 남은 발자국과 움직임은 서로 겹치며 새로운 길과 지형을 만든다. 하나의 움직임이 사라지기 전에 다음 움직임이 그 위에 놓이고, 작은 흔적들이 쌓여 무대의 형태를 바꾸어간다. 무용수들은 반복되는 행위의 고됨을 피하기보다 몸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간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움직임과 시간을 겹겹이 쌓아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를 완성한다.

〈KIWA〉는 이 과정을 지금의 몸으로 풀어내기 위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몸의 근육을 단련하고, 걷고 밟고 다지고 밀어내는 기본적인 행위부터 안무를 다져왔다. 가장 작고 사소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겹쳐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삶을 이어왔는지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 겹쳐진 시간 속에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의 감각을 다시 발견하고자 한다.



드라마투르그의 시선

#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K I W A〉에서는 진흙이 주요한 작품의 구성요소로 자리한다. 흙에서 비롯된 기와의 속성을 표현하고자 이를 택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진흙은 사람의 몸으로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과정의 조건으로 자리한다. 이를테면 삶의 태도를 경험하는 방식으로써 작동한다. 안무가가 의도한 "단조롭고 반복적인 행위와 이름 없는 수고"를 드러내는 매질로 작용해 사람의 의지와 사소한 행동, 시간과 기억의 흔적을 되새기고 다진다. 흡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책이 점토판으로 남겨진 것처럼, 기록의 물질적 형태로 읽힐 수 있다. 사람의 몸과 진흙이 만들어낸 물리적 실체성을 통해 작품은 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효율성과 빠른 속도에 반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감각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한편 "인간의 망설임"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발견한 안무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누군가가 내미는 오른손을 살며시 보듬는 왼손이 연결될 수 있는 삶의 조건과 그 조건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중이다. 이 수행적 경험이 다음 창작의 구조적 기반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안무가로서의 방향감각을 다지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완성은 드러나는 결과와 더불어 드러나지 않는 과정에 있다는 것. 이 또한 예술의 조건이지 않은가.



안무가 합초롬

합초롬은 경희대학교에서 무용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며, 청년복합예술단체 '코스모스인아트'의 예술감독이자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협력하는 '팀올라운더'의 공동대표로서 창작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안무가이다.

그는 '공존'을 핵심 주제로 삼아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관계와 그 다층적인 과정에 주목한다. 그에게 공존이란 단순한 물리적 함께함을 넘어, 서로의 차이와 무게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를 맺어가는 역동적인 행위에 가깝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수반되는 반복과 축적, 그리고 그 흐름이 몸과 시공간에 새겨놓는 '감각적인 흔적'을 포착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안무 언어로 '공존'의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 스테이지 1과 함께한 순간

**26.06.17**
**킥오프(상견례)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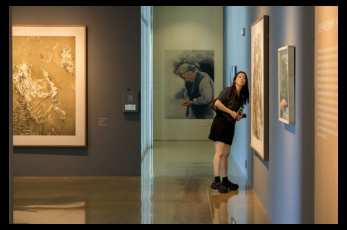






**26.07.01**
**네트워킹 워크숍 at 강원도 춘천**





**26.07.20**
**기획 크리틱**







**26.08.28**
**제작 리서치 at 국립현대미술관**



**26.09.16**
**중간공유회**











# KI MOOGAN









# SOHN JUNGHYUN











# LEE SEISEUNG









# HAM CHOROM







# 2026 ARKO DANC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
| 위원장 | 이범헌 |
| 사무처장 | 박범수 |
| 예술극장장 직무대리 | 홍승욱 |

## 극장운영팀

| | |
|---|---|
| 팀장 | 홍승욱 |
| 제작·기획 | 이유진, 황금실, 김자은, 두송희, 김민주, 장현진, 이지수 |
| 대관 | 김태홍, 김예진, 김예닮 |
| 홍보 | 이재일 |
| 고객지원센터 | 편영란 |
| 하우스 |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수현 |
| 티켓 | 신지혜, 김지수, 손주형, 유기은, 장은정 |
| 시설 | 이기복, 박성국, 박동진, 윤지환, 유호성, 김부형, 진호택 |
| 꿈밭극장 | 김미지, 이재이 |



# UP:RISE

## 무대예술팀

| | |
|---|---|
| 팀장 | 진용남 |
| 무대 | 유창대, 이동선,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원소미, 이미현, 진형주, 박영규, 최명인, 성지연 |
| 조명 | 이주환, 탁형선, 김병구, 박선임, 김도형, 윤지수, 김우연 |
| 음향 | 김경남, 도명호, 허선영, 김종현, 남영모, 유준상, 정하윤, 이현주 |
| 무대기술 119 지원센터 | 김희선, 김하진, 이은주, 김수진 |
| 꿈밭극장 | 신동환, 최우영 |

## 2026 아르코 댄스 UP:RISE ‘Stage 1’

| | |
|---|---|
| 안무가 | 기무간, 손정현, 이세승, 함초롬 |
| PD | 김자은 Arko |
| AD | 장현진 Arko |
| 모더레이터 | 이단비 |
| 고객지원 | 편영란 Arko |
| 하우스매니저 | 황수희 Arko, 김수현 Arko |
| 티켓마스터 | 신지혜 Arko, 김지수 Arko |
| 사진 | 옥상훈 |
| 영상 | 율하우스 |
| 홍보물디자인 | 인더그래픽스 |
| 제작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 2026 ARKO DANCE UP: RISE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무용분야 제작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